



보도시점 2024. 7. 7.(일) 14:00 배포 2024. 7. 7.(일) 10:00

조금 느린 청년들이 끓이는 매콤한 김치찌개 덕수총리가 맛보고 '엄지 척' 했습니다

'청년문간밥상 슬로우점',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 100일

- 3000원 김치찌개 단일메뉴로 고물가시대 맛집 도전하는 40석 식당
- 한덕수 총리, 취업 100일 축하하며 직원 부모 초청해 청년들과 찌개 서빙
- 청년들, 부모에 카네이션 선물...한 총리, "느린 사람도 행복한 사회 돼야"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7일(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착한밥집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했다.
- 청년밥상문간은 고물가시대 한 끼 식사비가 부담스러운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김치찌개 단일메뉴를 1인분 3000원에 판매하는 식당이다.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이 기업과 개인 후원금 등을 받아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중이다. 서울 4곳, 제주 1곳 등 전국 5곳에 있다.
- 한 총리는 이중, 가장 최근에 개점한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찾아가 개점 100일을 축하했다.
- 지난 3월 문을 연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은 다른 지점과 달리 홀 서빙과 주방 보조 담당 직원 10명을 모두 경계선지능 청년들로 채용했다.
-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이하)는 아니지만, 평균지능보다 약간 낮은 경계구간 지능(IQ 71~84)을 가진 이들로, 학업과 사회생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식적인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국민(5129만명)의 13.6%(약 697만명), 이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78만명으로 추정된다.

-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성복)과 협의해 취업 의지가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직원 10명을 선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했고, 이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을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에 고용했다. 평균지능을 가진 일반인보다 업무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손님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상호도 느리다는 뜻의 ‘슬로우(Slow)점’이라고 달았다.
- 이문수 이사장은 “처음에는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조금 서투를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은 ‘느린 식당’을 감수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오는 단골도 많다”고 말했다.
- 식당 한쪽 벽에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슬로우점 설립 취지 안내문이 걸려 있고, 가게 이곳저곳에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향한 손님들의 응원 문구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다.
- 이 이사장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배우는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한번 맡은 바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한다”면서 “처음 일을 시작한 청년 중 단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에서는 개점 100일과 청년직원 근속 100일을 동시에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과 청년직원, 그 가족들이 참석해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 임예찬(25) 홀매니저는 "근속 100일이 된 소감이 어떠냐"는 한 총리의 질문에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만둔 경험이 있다”면서 “이곳에서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려주고 서로 돕고 있어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 조재범(19) 홀매니저 역시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평소 집에만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배우는 게 많다”며 “월급을 받고 난생 처음 적금도 가입했다”고 뿌듯해했다.

- 청년 직원들은 이날 100일 축하 파티에 참석한 가족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감사함을 표시했고, 가족들은 “대견하다” “장하다”고 어깨를 토닥이며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 청년밥상문간 100일 파티 음식 메뉴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다. 한 총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청년직원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서빙했다. 자녀들이 만든 김치찌개를 맛본 가족들은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며 엄지를 세웠다.
- 한 총리는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은 김치찌개를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용기와 위로를 얻는 착한 식당”이라면서 경계선지능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를 마련한 이문수 이사장과 이성복 관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 한 총리는 또 “부모님들이 그동안 남모르는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오늘 자식들이 의젓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뭉클하셨을 것 같다”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 한 총리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지원도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남보다 느린 사람도 다양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현실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담당 부서	사회조정실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한레지나 (044-200-2290)
		담당자	사무관	최단비 (044-200-2291)
	공보실 뉴미디어운영과	책임자	과장	감혜림 (044-200-2702)
		담당자	사무관	양보라 (044-200-2729)